

제 140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 Robert Dujarric(로버트 듀자릭-템플대학 일본캠퍼스, 현대아시아 연구소 소장)

주제 : 거꾸로 가는 일본의 지구화와 3.11의 충격(Japan's **Reverse Globalization** and the impact of 3.11)

<Japan's virtual Berlin Wall>

대재해 이후 일본은 사회 조직체계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에서 일본은 TEPCO(동경전력)을 실패를 통해 일본 사회의 경직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지진 후에 사회의 반응에서 비폭력성, 안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문제, 고령화 사회, 경제 문제 등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다.

일본은 세계 2~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고 역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일례로 해외 유학 아시아인의 비율 중 일본이 중국, 인도, 대만,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2008년 기준 해외유학생의 수가 중국 417,351명, 한국이 101,913명인데 비하여 일본은 60,225명으로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미국 하버드대의 유학생의 경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 유학생은 212명에서 314명으로 증가한 데 반하여 일본의 유학생은 126명에서 101명으로 감소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아시아인의 비율 중 일본의 비율 또한 매우 낮다. IMF 고위급 직원의 일본인 비율은 1.5%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근무하는 재외 일본인을 제외하면 매우 적은 수의 일본인이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수학한 학자들의 경우도 2000년 7,674명에서 2009년 3,739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이 같은 사회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은 동아시아의 국가 중 서양 스타일의 관리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정부의 형태가 유럽식을 여전히 닮아 있으며 따라서 조직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 크지만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굳어진 조직은 변화가 힘든 편이다 내부의 인사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해외에서 유학한 젊은 인재들이 이러한 사회 조직 속에서 자신이 유학에 투자한 시간과 자금만큼 국가로부터의 인정을 받기가 힘든 사회로 굳어져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자면, 일본의 경제는 제조업에 강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약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외국의 문화나 상황을 서비스업종에 적용하는 것에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서비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이 세계 속에서 고립되어 가는 문제는 비단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Q & A>

Q1. 일본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언급하셨는데 최근 중국이 2위로 일본의 경제를 이는 일본 국내경제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국외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일본의 경제는 수입, 수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해서 중국보다 폐쇄적입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 대만은 경제의 규모도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도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일본보다 오히려 외국시장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일본의 역 글로벌화에서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통일을 한다면 일본의 입지가 더욱 작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3. 왜 일본의 역 글로벌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갖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폐쇄적인 정책들이 역 글로벌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4. 글로벌화의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일본에서 근무하는/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 제일 외국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중 중국인의 과잉현상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학부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질문5.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나라라는 것이 일본의 고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인데 그게 얼마나 유지될까요?

- 일본은 인구통계학적인 문제,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첫 나라입니다. 일본의 글로벌화예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일본사회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질문6.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슈들 때문에 한중 관계가 중일, 한일 관계보다 좋아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제안하시고 싶은 점은 없으십니까?

- 일본은 과거사를 처리하는 자세는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과

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여러 사례들로 볼 때 제 입장에서는 정부의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